

#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송실대학

유영렬 \*

- I. 송실학당·송실대학의 창설
- II. 평양 대부흥운동
- III. 송실대학의 기독교 민족운동
- IV. 서울 송실대학교의 과제

## I. 송실학당·송실대학의 창설

기독교가 한국에 수용된 개화기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요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했다. 문호개방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근대와 침략의 물결이 몰려왔다. 서양세력과 서구적인 일본세력이 침략해 왔고, 이를 통하여 근대문물이 들어왔으며 기독교도 들어오게 되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했다가 환궁한 뒤, 자주독립을 목표로 하는 독립협회와 근왕파는 국왕을 중국황제와 대등한 지위로 올리려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1897년 8월에 연호를 광무라 하고, 10월에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여 대한제국을 성립시켰다. 송실학당은 1897년 9월에 미국 북장로교 소속 베어드(W.M. Baird, 裴緯良) 선교사에 의해

---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세워졌다. 이처럼 격동하는 시기에 송실학당은 대한제국과 같은 해에 창설된 것이다.

선교교육자인 베어드가 송실학당을 평양에 세운 것은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이 한반도에서 가장 개화의식이 강했고,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한 곳이어서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베어드는 어떤 생각으로 송실학교를 세웠을까?

송실학교 출신 조만식은 1935년 조선기독교연합회 하령회에서 “조선문제의 해결은 기독교회의 부흥과 교역자들의 수완 발휘와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송실학교 은사 베어드 교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내가 조선에서 전도함은 조선인의 영혼만을 천당으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세기에 조선의 민족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베어드가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송실학당과 송실대학을 설립한 목적은 미신에 빠져있는 한국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일제의 억압에 허덕이는 한국의 현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여 송실대학의 미국인 교장과 교수들은 한국인에게 전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했던 것이다.

1906년에는 송실학교가 대학부와 중학교로 분리되어 송실대학이 설립되었다. 송실대학은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려는 첫 조치로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다음해에 설립된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근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교육구국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기독교선교사들이 송실학교 졸업생들의 요청을 받아, 평양에 대학을 세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 주민들은 교육구국의 뜻을 가지고 순식간에 상당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수천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학건립기

금으로 기부했다.

요컨대 숭실대학은 선교사들의 한국 민중을 위한 기독교 정신과 평양 주민들의 교육구국을 위한 민족정신의 결합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평양예수교대학 곧 평양숭실대학은 평양주민의 대학, 기독교 민족 대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II.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신앙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제의 강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4개월 뒤, 평양숭실대학이 창설된 지 1년 뒤에 일어났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1907년은 일제의 강요로 고종황제가 퇴위하고, 한국군대가 해산되어 국가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민족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는 1907년 1월에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렸다. 이 사경회에서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는, 친구가 임종 시에 관리를 부탁한 재산의 일부를 자신이 훔친 사실과 방위량(블레이어)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한 사실을 고백하고 참회했다. 길선주 장로의 참회에 감복하여 그곳에 모인 수많은 교인들이 은밀히 숨겨온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장대현교회에 성령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신앙부흥의 불길은 교파를 초월하여 평양 시내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확산되었다. 특히 숭실대학과 평양장로회신학교의 개강 사경회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어, 1909년에는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확대되

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장차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평양에는 송실대학·송실중학·송덕학교·광성학교 등 기독교 학교가 많았으며, 거기에 재학중인 학생들만도 2,500명에 달했다. 바로 이들이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집단적으로 전도운동을 전개했다.

송실대학과 송실중학 학생들은 일시 수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사경회와 기도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그룹을 지어 평양시내와 인근 촌락을 다니면서 전도운동을 전개했다. 송실인들이 대거 참여한 평양 대부흥운동은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기독교신앙의 기반을 닦게 했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민족의 현실을 구원하려는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길선주 목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활동했고, 지속적으로 독립정신을 가지고 목회활동과 교육사업을 병행했다. 길선주 목사의 장남 길진형은 승중 4회, 승대 3회 졸업생인데 신민회 회원에 가담하고, 105인사건으로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따지고 보면 길선주 목사도 송실가족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이용도 목사도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여 독립사상을 가지고 3·1운동에 참가했으며, 기독교신앙과 민족의식의 상관성을 중요시하여 민족과 소외된 자를 위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교역자,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신자인 것은 기독교와 민족운동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실대학교 박물관을 창설한 사학자 김양선 목사는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를 ‘민족을 위한 교회’ 곧 ‘민족교회’라고 명명하기도 했던 것이다.

기독교가 한국에 수용된 개화기에 있어 한국의 민족적 과제는 열강의

국권침탈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것이었고, 지배층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사회의 근대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근대지식의 흡수,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생각하며 교회 문을 두드렸고, 실제로 당시의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기독교교육, 근대교육과 민족운동의 산실이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일제는 한국 침략에 있어 1차적 걸림돌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를 지목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와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 Ⅲ. 숭실대학의 기독교 민족운동

기독교 민족대학의 성격을 띠고 설립된 숭실대학은 지속적으로 기독교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을사조약 체결 당시 학생들은 수업을 전폐하고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일부 학생들은 서울까지 올라와 망국조약 취소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숭실인들이 대거 참여한 1907년 평양 대부흥회는 숭실의 영적 기반이 되었다. 숭실대·중학교(당시 숭실대와 숭실중학의 합칭 용어) 학생들은 평양 대부흥회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했으며, 숭실대학·숭실중학 기독교학생회는 1909년에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나라 학생전도활동의 최초를 기록했다. 1910년에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1911년에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나라 해외선교 활동의 첫 문을 열기도 했다.

수많은 숭실출신 인사들은 한말의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하여 민족운동을 벌였고,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숭실대·숭실중학생과 졸업생들은 1910년대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밀결사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송실대·송실중학생들이 평양의 3·1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송실인 2명은 3·1운동 민족대표로 활동했다. 3·1운동 이후에는 전도강연과 음악전도대를 통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송실대·송실중학생들은 광주학생운동을 뒤이어 1930년에 평양학생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송실대학과 송실중학교는 1938년에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기독교신앙을 약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여 자진 폐교함으로써 민족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지켰다.

당시 송실대·송실중학교는 사실상 북한지역 ‘민족운동의 본산’이었으며, 따라서 송실은 일제당국으로부터는 ‘불온사상의 온상’으로 낙인이 찍혔다. 송실전문학교 재학시절에 항일운동에 참가했던 사학자 김양선 목사는 “송실은 독립운동의 선봉장이었다. 송실은 명실공히 애국자의 양성소였고, 민족정신의 수련도장이었다. 송실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은 벌써 애국청년이었고, 송실의 문을 나온 사람들은 항일 민족운동자였다.”고, 송실학교의 민족적 성격을 정확히 표현한 바가 있다.

#### IV. 서울 송실대학교의 과제

평양 송실대학은 한말의 민족적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창설되어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줄기차게 민족운동을 했고, 전도활동과 농촌운동을 전개했으며, 과학기술교육을 중요시했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잡지 『조광』이 송실대학 학생들은 <조선의 지도자적 존재>였고, 송실대학은 <조선문화의 연원지> <사회정치문제와 학술의 중심지>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평양송실은 민족적 사명을 잘 감당했다.

1925년에 송실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의 성자로 칭송받은 한경직 목사는 평양 송실의 가르침을 “하나님 사랑을 첫째로 하고, 둘째 나라 사랑, 셋째 학문과 과학의 탐구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송실의 목표를 정확히 정의한 것이다.

평양 송실은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학문의 위에 두었다. 그래서 송실학생들은 확고한 신앙과 애국심을 토대로 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전공분야에서 능력있는 지도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수한 평양 송실인들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민족운동, 기독교계, 교육계, 과학기술계, 음악계, 문학계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인물로 성장했던 것이다.

오늘날은 물질제일주의 시대이다. 세계화의 시대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서울송실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평양 송실의 가르침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해도 송실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나와 국가와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곧 송실인들은 올바른 신앙과 애국심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전공학문을 열심히 하여 능력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송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 정도로 눈부신 변화를 했다. 평양 대부흥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7년에 송실은 새롭게 신앙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국가가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물을 배출해야 한다. 서울 송실은 과거의 평양 송실처럼 민족과 국가의 중심에 서야 한다.

끝으로 평양 송실의 전통을 이어받은 서울 송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통일 후 평양에 송실대학을 재건해야 하는 사명이다. 지

난 10월 8일자 <송대시보>에 실린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의 발언은 감동적이었다.

김 총장은 “본인과 선친 역시 송실 졸업생으로서 송실의 뜻을 이어 받아 100만평 부지 위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워 통일 후 송실 본교를 복원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100주년 기념으로 송실인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말대로 우리는 통일 후 평양과학기술대학을 기반으로 반드시 평양에 송실대학을 재건하고, 하나님과 나라와 학문을 사랑하는 송실의 정신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송실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